

한국불교 중흥 위해 정진...불교 미래 초석 다졌다

2015년 결산 / 총무원

2015년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습니다’를 기조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하고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제34대 총무원장 취임 2주년의 해인 올해 총무원은 안정적인 종단 운영의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실현하는 일에 전력해왔다. 불교 내부적으로 소통과 화합, 혁신을 강조하며 변화와 발전을 모색했으며, 대사회적으로는 사회와 호흡하며 현대사회에 감동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 실천에 앞장섰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봉행했던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는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 규모 법석으로 한국불교의 자산인 간화선과 무차·평등의 정신을 세계민방에 과시한 대회였다. 더불어 공존과 상생, 합심을 키워드로 마음의 통일을 강조한 불교통일선언도 발표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종단이 앞장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불기 2559(2015)년 부처님오신

100인 대중공사 활로 개척
최대법석 간화선 무차대회
충본산성역화 불사 본격화
선학원 정상화 등은 ‘소결음’

날 봉축법요식 역시 자비와 화합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소외계층의 초청해 봉행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유가족과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기동전자 노조를 비롯해 잘못된 편견과 인식으로 차별받고 있는 성소수자 등이 참여해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 받는 세상을 염원해 눈길을 끌었다.

2015년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조계종 충본산 성역화 불사(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통합종단 출범이후 최대 불사로 평가받는 성역화 불사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인근 광화문과 인사동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조계사 일대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이자 전통과 근·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꾸준히 사부대중이 함께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모색했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 2주년

사부대중이 함께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종단 현안에만 집중하지 않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종단 운영에 반영하고 대중공사 논의결과를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올해 주요 성과였다.

종단 최초로 종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승가청규>의 제정과 공포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청규의 공포는 종도들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승가공동체 구현을 위한 다짐이자 현대사회 속에서 승가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뿐만 아니라 종단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100인 대중공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온 그 결과물로서 종단 청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승려복지 역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부터 기존 65세 이상 무소독, 무소임 스님 등 1000명에게 한정됐던 복지 혜택을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8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를 비롯해 충본산성역화 불사 본격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승가청규 제정 등 올해 총무원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하고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31일 제34대 총무원장 취임 2주년 기념촬영. 불교신문 자료사진

난 4월부터는 교구와 해당 사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호평을 받고 있다.

올 한해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도 많았다. 법인 등록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선학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선학원이 종단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담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선학원을 상대로 가져분에 이어 분안 소송까지 진행 예정이어서 선학원 문제 해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증사 문제, 동국대 사태 등과 이에 대한 일부 단체들의 무분별한 종단 비판과 문제제기 역시 오점으로 꼽혔다. 일부 단체들의 종단 비판과 때도, 특정인을 끌어내리는 식의 주장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고 종단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일부의 의혹제기에 대해 종단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염불에 이어 외국어스피치대회 홈런~

2015년 결산 / 교육원

조계종 교육원장 현웅스님이 지난해 12월 재임하면서 종단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승가교육개혁은 올해도 이어졌다. 기본교육기관에 표준교육과정이 안착하면서 학점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승가고시제도도 안정화 단계다. 지난 4월에는 종단 최초로 승납 25년 이상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1급 승가고시가 시행됐고, 지난 10월 치러진 2급 3급 승가고시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기도 했다. 합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스님들이 많은 준비를 했음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짐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시위원들 사이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배포한 논술문제나 단답형 문제집 외에서도 고시를 출제해 스님들이 폭넓게 공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개최해 화제를 모은 염불대회에 이어, 올해 외국어스피치대회 또한 성황리에 치러졌다. 학인 스님들은 표준교육과정을 통해 배우고 있는 외국어로 부처님 가르침과 한국의 불교문화를 공연으로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교육원은 상용외레나 외국어 교과도의 이후 나타난 결과로, 학인 스님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승가교육 내실화 결과로 평가
고시 안착, 변별력 과제 제기
출가자 급감해 미래승가 위기
출가진흥 위한 사업 추진 중

그러나 스님들에게 지계제의를 심어주기 위해 현대에 맞는 청규덕목을 수록한 <승가계본>을 만들어 승가교육교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현대사회를 반영한 승가청규를 만들어 법제화하고 아울러 학인 스님들에게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세미나도 열고, 발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결국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 출가자 확대를 위한 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9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수계교육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 출가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원은 출가진흥을 위해 내년도에는 출가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가홍보를 준비 중이다.

부족한 승가교육진흥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원만이 아닌 종단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 및 사찰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장학생, 승가대학 교수사와 종단 교육이사리 연구비 등 승가교육진흥기금을 통해 나가는 각종 지원제도 유지를 위해 종단적 관심이 필요하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지난 10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처음으로 열린 조계종 학인외국어스피치대회. 불교신문 자료사진



포교원이 지난 4월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선혜' 품계 특례품수식. 선혜 품계는 발심과 행도, 부동, 선혜 등 4단계의 신도 품계 가운데 최고 품계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품수식 통해 품계제도 대중화 모색

2015년 결산 / 포교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직무대행 송묵스님)은 신도품계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선혜 품계 품수식을 봉행했다. 선혜 품계는 조계종 신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신도품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다.

선혜 품계를 시작으로 지난 10월에는 조계종 기본교육 수료생 240여 명에게 행도품계를 수여했고 작은 사찰에서도 품계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종무원을 대상으로 부동품계를 품수해 신도품계 대중화 사업을 전개 중이다.

SNS 포교를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을 개발해 불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익살스러운 표정의 동자승 '반야'와 고양이를 그린 '반야의 야단법석' 지난 5월 23일 첫 선을 보인 직후 카톡 이모티콘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최근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기도 했다. '반야'의 인기로 포교원은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찰중심의 지역공동체 포교를 위해 찾아가는 정책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의 공동체모임 사찰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 인성교육개발·인증위원회를 출범하고 전인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 출시
인기 높아지면서 후속사업 추진
내년도 3월까지 포교원장 공식
원장 임명 후 사업 연속성 과제

적 인성교육, 평생인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포교원 인증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에서 활용하는 등 사회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신년에 밝힌 사업 중에는 현실화되지 못한 것도 있다. 대중화된 법문콘텐츠 개발을 위해 재가자 대상 설법대회를 계획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포교원 차원에서 개발된 전 범포교원 프로그램이 사찰이나 포교단체에 보급돼 활용되는 지점이 많지 않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임기를 1년 반이나 남긴 포교원장 스님이 지난 9월 호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포교원은 수장이 사라졌다. 지난 11월 중앙총회에서 신임 포교원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직무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3월 총회 때 후임 포교원장 인사가 이뤄질 거란 예상 아래, 대행체제에서 짜여진 2016년도 사업계획 추진이 연속성을 갖는 게 관건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불기2560(2016)년도

4급 승가고시 시행공고

승가고시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기2560(2016)년도
'4급 승가고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대상 _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또는 2016년 3월 졸업예정자

→일시 _ 불기2560(2016)년 3월 25일(금) 08:00~16:00

→장소 _ 중앙승가대학교 지혜관(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제출서류

- 가. 4급 승가고시 응시 원서(종단 지정양식) 1부 : 사미·사미니 의제 착용 사진 2매(3.5×4.5cm)를 반드시 응시원서와 응시표에 부착
- 나. '기본교육과정 이력서'(종단 지정양식) 1부
- 다. 일상수행 평가서 및 '불교상용외레' 과목 평가표 각1부 - 이 서류는 응시자가 제출하지 않으며, 졸업교육기관에서 교육원으로 제출함.
- ※ '응시원서', '기본교육과정 이력서'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2015년12월 26일자) '2016년 4급 승가고시 시행공고' 첨부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기간 _ 불기2560(2016)년 2월 23일(월) ~ 3월 4일(금)

※ 우편접수일 경우 3월 4일 도착분에 한함.

→원서 접수처

- 가. 재적 교구본사
- 나. 직할교구 재적승 : 교육원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건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시험과목

- 가. 논술 : 100점
- 나. 객관식 및 단답형(사지선다형, 단답형) : 50문제 100점
- 다. 서류심사(일상수행 평가 30점) 및 면접
 - ① 2015년 졸업자, 2016년 졸업예정자는 대면면접 70점
 - ② 2014년 4월 이전 졸업자는 염불시연 30점, 대면면접 40점) : 100점
- ※ 객관식 및 논술 고사의 출제내용과 시험준비에 대한 세부사항(핵심주제어, 참고도서)은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2015년 12월 26일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_ 2016년 3월 25일

일정	시간	소요	내용
접수 및 안내	08:00 ~ 08:40		중앙승가대학교 지혜관 1층 로비
1 교시	09:00 ~ 10:20	80분	논술고사
휴식	10:20 ~ 10:40	20분	휴식
2 교시	10:40 ~ 11:40	60분	객관식고사
점심공양	11:40 ~ 13:00	80분	점심공양
3 교시	13:00 ~ 16:00	180분	대면면접(2014년 3월 이전 졸업자는 '염불시연' 포함)

→준비물 _ 승려증, 만의가사, 장삼, 필기구

→결과발표 _ 불기2560(2016)년 3월 28일(월) 11시

종단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 합격자는 총무원이 별도로 공고(종단 홈페이지 참조)하는 구족계 수계산림에 입방하여야 함

→유의사항

- 가. 응시대상자는 서류제출 이전에 본인의 결계·포살 참석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문의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 02)2011-1703, 재적교구본사 총무소) 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후 결계·포살에 1회라도 미비한 응시자는 결계포살에 관한 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고시응시가 유예됩니다.
- 나. '응시원서', '기본교육과정 이력서' 양식은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년 4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첨부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4급 승가고시 우수자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마. 기타사항은 교육원(승가고시 담당자 행정관 양진호 ☎ 02)2011-1809)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불기2559(2015)년 12월 26일

☎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회 위원장 지안